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5일 수요일 음 12월 3일 (10물)

###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	주	60%
30%	성	산	60%
30%	고	산	60%
30%	서구	니포 <b>-</b>	6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구름 많음 5/9°C

구름 많음

# 흐리고 비

제주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 저기온은 3~5℃, 낮 최고기온은 7~9 ℃로 전망된다.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짧은 곳 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 의해야 한다.

		해뜸 07:39 해짐 17:40		달뜸 09:55 달짐 20:27		
į	물때	만조 12:54 00:00		간조 06:25 19:24		
•	+	식중독지수		감기지수		
	주의		높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모레

# '데이비드 보위' 저작권 3000억 원에 매각

4/9℃

6년 전 세상 뜬 최고의 록스타

6년 전 별세한 데이비드 보위가 생 전에 발표한 400여 곡의 저작권이 워너 뮤직에 매각됐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 시간) 다국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워너 뮤직이 보위의 유족과 저작권 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계약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억5000만 달러(한화 약 2983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밥 딜런과 브루스 스프링스 틴이 각각 3억 달러(약 3580억 원) 와 5억5000만 달러(약 6564억 원) 에 저작권을 매각했지만, 사망한 뮤 지션 중에선 보위의 거래대금이 최 대 규모다.

영국 출신인 보위는 1967년 데뷔 앨범 '데이비드 보위' 이후 2016년



6년 전 별세한 데이비드 보위.

사망 직전 발표한 앨범 '블랙스타' 에 걸쳐 50년 가까이 록음악계에서 가장 첨단을 걸은 뮤지션으로 평가 된다.

그는 1990년대 이후에는 인더스 트리얼 록과 드럼앤드베이스, 테크 노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했다.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은 세계적 으로 1억 장이 넘는 음반을 판매한 그가 69세를 일기로 암 투병 끝에 사망하자 '역대 최고의 록스타'에 선정하기도 했다.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b> 한리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b>김 건 일</b> 편집국장 조 상 윤						
9292	⊕ 63	185 제	주특별제	나치도 제를	주시 서	사로 154	
제 주 의 대 표 신 문				1— 101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광고접수	- 본	사 750-	2828 /	FAX 752-	7448
e-mail:hl@ihalla.com			서귀포	지사 732-	5552 /	FAX 732-	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		750-233 워저 10.0		브 500위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12.5 등록번호:제주,기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건강&생활



진 승 현 꽃잎위에선 한의원장

제주의 성산일출봉에 2022년 첫 해 가 떴다. 새해가 되면 꼭 하는 다짐 중에 하나가 있다. '올해는 술담배 끊어야지.' '이번에 살을 꼭 빼야지.'

새해가 될 때마다 도전한다는 것 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이유 는 중독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뇌는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만 중독에 빠지게 되면 전혀 잘못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잘못된 감각 을 느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밀가 루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실제로

# 진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법

그런 음식에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뇌가 중독돼 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해서 먹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다. 씹고 맛을 즐기고 나면 책임감 없이 몸속으로 집어 넣어버린다. 그 때부터 몸은 난리가 난다. 또한 미 각에 문제도 생긴다. 한의원에서 치 료 받는 비만환자 중에 고도비만환 자의 경우 간혹 물을 못 드시는 분 이 있다. 물은 아무 맛이 나지 않는 다. 그런데 물에 대해 역하다는 느 낌을 받아서 못 먹겠다고 한다. 그 리고 매운 음식에 대해 매운 맛을 잘 못 느끼고 아주 매워야 맵다는 느낌을 받는다. 즉 자극적인 맛에 노출되다 보면 그 맛에 익숙해져서 뇌는 그 맛이 일반적인 맛으로 인 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게 돼서 살이 더 찌는 악

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법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뇌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면 서부터 음식에 중독돼 있지는 않다. 후천적인 환경이 나의 뇌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어려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먹였을 것이고 할머니가 그 렇게 먹였을 것이다. 대학을 가서는 혼자 살면서 더 그런 환경에 노출되 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래대로 뇌를 돌려놓을 것인가. 환경이 문제였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야 한다.

뇌는 항상 먹을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뇌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식탁위에 항상 올려져 있는 과

▷서랍장 곳곳에 있는 과자, 사 탕, 빵 등을 치우자.

일바구니를 치우자.

▷식욕을 자극하는 배달앱을 지

우자.

▷저녁이 되면 올라오는 식욕을 잠재우기 위해 일찍 잠에 들자.

▷누군가의 만남은 거의 무언가 를 먹게 돼 있다. 모임을 줄이자.

▷음식 자체를 싱겁게 차리자. 뇌 가 처음엔 거부하지만 곧 익숙해진다. ▷물을 자주 마시자. 뇌를 훈련하 는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줄이자. 스트레스 는 뇌를 흥분시키고 식욕을 올린다.

매해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쏟 아지고 다이어트 식품이 쏟아지고 각종 운동도 추천을 받는다. 그런데 그 수많은 방법들은 당장 체중을 줄 이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음식 을 먹으라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뇌를 고치려는 노력이 없던 것이다.

먹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다이어 트에 성공할 수는 없다.

이제 뇌를 훈련시키자.

# 열린마당

# 투명 페트병의 재발견



고 상 희 서귀포시 영천동장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과 사용 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플 라스틱 사용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 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 는 것도 중요하다. 플라스틱의 재활 용률을 높일 수 있는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이 그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자 원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오랫 동안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실천해왔 다. 그 중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패 트병이 1년에 30만t으로 80%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지만 혼합배출로 인해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는 건 10%에 그친다고 한다. 투명페트병을 별도 길 바란다.

분리 배출해야 이유중 하나는 재활 용률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유사품목 플라스틱 혼합배출은 노 끈, 솜, 부직포와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재활용만 가능했다.

투명 폐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활 성화된다면,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 료를 연 2.9만t에서, 10만t으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투명 페트병 배출방법은 어렵지 않다. 재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유색과 투명 페트병을 잘 분리해서 분리 배출하 는 것이 중요하다. 페트병의 오염도 에 따라 상품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 에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해 찌그러트린 다음, 뚜껑을 닫고 투명 페트병 수거함에 넣어주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투명페트병은 무한한 변신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 한 자원으로 돌아온다. 투명페트병 의 올바른 분리배출의 생활 습관으 로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 는 삶의 터전을 우리 모두가 지켜내

# 상속이 안된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이 미 경 제주시 재산세과

재산세 부과대상중 사망자의 부동산 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누구에게 부 과해야 될지 궁금증이 생긴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과세자체가 원인무효가 되므로, 상속등기가 이행 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찾아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주된 상속자의 기준은 첫 째,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둘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는 생존한 자녀중 연장자 순, 셋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으나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 망자의 손자녀중 연장자 순, 넷째,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모두 없는 경 우 생존한 부모, 다섯째, 배우자, 자 녀, 손자녀, 부모 모두 없는 경우 형 제, 자매 중 연장자가 된다.

제주시는 사망자의 상속등기가 이 행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권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사실 상 소유자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에서 주된 상속권자 에게 납세의무자를 직권으로 지정히 게 된다. 사망자의 납세의무자 변경 을 위해서는 시청의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속협의 서 등의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 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권자들이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자진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유라실생 하우스 귤 많은 견학바랍니다.

1, 2년생

·한라봉

**-유라조생** 1, 2년생 -하귤 4, 8년생 ·궁천 -천혜향 1, 4년생 3, 5, **8**년생 -궁천 변이지(Shrbll) 2, 3년생 •**레드향**(무독) 1, 4년생

·하례조생 ·레몬 3년생 3년생 ·황금향 ·고림조생 5년생 1, 4년생

·그외 다수품종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010-2699-2355

#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종묘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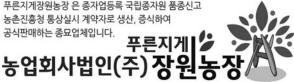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잔뿌리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천혜향/레드향/황금향/카라향/궁천 유라조생/흥진/하귤/금귤/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제 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083 / 제 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4450-4316/010-6550-4316

# 국내개발 우수한 [우리품종]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위터프린스[황금향]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하례조생[궁천] ❖사라향[천혜향] 
 \* 탐나는봉[한라봉]
 \* 제라몬[레몬]

과수농가 우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미니향(고당도 오하라베니(궁천변이지)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댕유자, 아마나스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 감귤묘목 분양

##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2년생

■ 미니향 2년생● 레몬3년생,

● 제라몬2년생 ● 미니몬1년생 ● 하귤(아마나스)1~4년생

# ※ 극조생 &조생

● 궁천조생1~3년생 ● 유라조생1~2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히노아까리 3년생

● 오하라베니와세(궁천변이지) 1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外

## ※ 탱자묘목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농장 : 강정동465-1, 1013-1, 2327-1 하예동1831-2번지 外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 -1082